

한신대 휴먼케어융합대학원

죽음교육상담전공 과정 소개

[휴먼케어융합대학원]

21세기 현대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기존 질서의 ‘해체’와 ‘부정성’으로 요약된다. ‘해체’와 ‘부정성’은 죽음의 은유이다. 이제 신과 종교마저 해체되었다. 신과 종교가 해체된 자리에 물질과 중독증으로 대체되었고 인간의 의식마저 질료화 되었다. 현대 소비-자본주의사회의 비만과 성과주의로 인간은 더욱 상품화되고 소진되었다. 구체적 삶의 진정성은 가상공간의 환각과 환상으로 도피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디지털 문화의 병리적 증상을 치유하기 위해 감각과 감성(qualia), 감정을 바탕으로 정신성과 영성이 결합된 융·복합 학문을 요청한다. 따라서 본 대학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관점의 재할상담과 죽음교육상담전공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죽음교육상담전공]

죽음학(사생학, Thanatology)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이나 고통을 어떻게 대면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그 실천의 방법과 기술을 제공해 주는 학문이다. 죽음교육은 곧 인문치유를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죽음학은 인간학(Anthropology)에 토대를 두고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죽음학(Thanatology)은 상실과 죽음을 경험한 내담자의 실존인간학적 관점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한다. 아직 한국교육 현장에서는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떠나보내고자 하는 사람, 자살과 트라우마 경험자 등을 포괄하는 치유와 체계 잡힌 교육과정 또한 부재하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과 함께 존엄한 죽음의 권리가 법제화되어 웰-다잉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한국싸나톨로지협회(Korea Death Education & Counseling)가 국제죽음교육상담협회(Association for Death Education and Counseling)와 연계하여 <죽음교육지도자> (국제과정, 민간 자격증 과정) 양성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받아 국내 죽음학과 죽음교육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요청에 따라 휴먼케어융합대학원에 <죽음교육상담>전공 과정을 개설 한다.

<학기별 교과목>

분류	1학기(개설과목)	2학기(개설과목)	비고(선택과목)

2023년도	<죽음학개론3> <죽음과 영적돌봄3> 총6학점	<상실·비탄·애도3> <죽음교육3> 총6학점	<생명윤리3> <종교와 죽음3> 총 2개과목
2024년도	<존엄한 임종결정3> <죽음학임상실천3> 총6학점	<평가와 개입3> <죽음교육실습3> 총6학점	<외상적 죽음과 치료3> <로코테라피·의미치료3> 총 2개과목
죽음교육상 담전공 총 교과목	학기내 의무필수과목(8개과목 24학점) <죽음학개론>, <죽음과 영적돌봄>, <상실·비탄·애도>, <죽음교육>, <존엄한 임종결정>, <죽음학임상실천>, <평가와 개입>, <죽음교육실습> 선택과목(4개과목 12학점) <생명윤리>, <종교와 죽음>, <외상적 죽음과 치료>, <로코테라피·의미치료> 1) 석사학위논문 대체과목 : 6학점(선택 4과목 중 2개 과목 선택) 2) 상위 전공(24학점) 및 선택과목(6학점) 포함 30학점 이수 시 국내 민간자격증(죽음교육전문가, 영적돌봄전문가, 애도상담전문가) 시험응시자격 부여, 국제인증 싸나톨로지 자격증시험 요건시수 50% 인정		

<전공 및 선택 과목 내용>

분류	교과목	교과내용	학점	비고
전공	죽음학개론	상실과 죽음을 경험한 사람의 비탄과 고통에 대한 7가지 연구 범주에 대해, ①심리·철학적 관점에서 본 죽음과 죽음을 맞이함(Death & Dying), ②종교·영성학적 관점에서 본 존엄한 임종 결정(End-of-Life-Decision Making, ③감정·애도·의미화 적 관점에서 본 상실·비탄·애도(Loss-Grief-Mourning), ④사회구조시스템과 정신분석에서 본 외상적 죽음과 대처(Traumatic Death & Coping) ⑤ 죽음학 방법론과 실천에서 본 평가와 개입(Assessment & Intervention, ⑥ 생애발달 및 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죽음교육(Death Education), ⑦고통의 의미화의 관점에서 본 죽음학-임상-실천(Thanatology- Experiential- Praxis)을 탐색해 본다.		전공필수과목

	죽음과 영적돌봄	영적 돌봄은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자각함으로써 주변 환경과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삶을 평온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 돌봄은 더 이상 추상적인 언어나 관념, 협애의 종교성으로 규정될 수 없다. ‘영성’은 일상적 삶에서 출발하여 다시 일상적 경험으로 귀결될 때 나타나는 현상임을 밝힐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돌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작업에는 엄격한 학문적 토대와 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과정에서는 영적 돌봄의 기초가 되는 감각과 지각·인지·기억·의식구조와 결단(행위)적 경험을 죽음학에 기반해 ‘영적돌봄’에 대한 3인칭적 교육과, 환자의 1인칭적 ‘영적 화해’를 인지과학과 뇌과학, 현상학, 심리철학의 학제 간 연구로 접근하고자 한다.		전 공필수의 무과목
	상실·비탄·애도	우리는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슬픔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플롯을 앞지르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고통스러운 부분을 지워 없애거나, 절망스러운 기억을 과거로 투사해서도 안 된다. 슬픔은 우리의 삶을 의미화하기 위해 머물고자 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다가온 슬픔을 억압·회피·연기하거나 대체물을 만들지 말고 온전히 대면해보자. 그렇게 하면, 감정을 만들어 낸 자신의 인지 도식을 알게 되고 그동안 습관적으로 이해했던 인과적 자기동일성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 주체의 탄생은 자각과 알아차림에 있다. 죽음학의 근간인 상실-비탄-애도-실천은 임종(죽음)불안연구, 상실과 죽음, 비탄과 감정치료, 애도와 의미치료, 임종과 의례, 애도 상담의 실제, 유가족집단상담의 구조를 탐색한다.	3	전 공필수의 무과목
	죽음교육	생애발달(임종기포함)특성별 죽음교육상담, 가족·사회 시스템	3	전 공

		템과 죽음교육상담, 공교육체계 내의 죽음교육상담과 표준 교과과정(초-중-고-대학생), 죽음교육상담의 윤리적 문제와 실천, 인터넷-디지털시대의 죽음교육상담의 실재를 연구한다.		필 수 의 무 과목
	존엄한 임종결정	인간의 존엄성은 ‘자기-존재’의 자각과 알아차림에 있다. 임종자의 불안연구, 사전의료지시서와 연명중단 결정, 중환자실의 연명치료기술과 존엄의 문제, 품위있는 마무리(존엄사,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비교),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호스피스프로그램(신체-심리-사회-정신의 전인적 돌봄), 유언과 상속기부 그리고 장기기증, 의결결정과 장례문화, 사별가족 돌봄은 모두 존엄한 임종을 위한 선결 단계이다.	3	전 공 필 수 의 무 과목
	죽음학임상실천	죽음학임상실천의 대상은 상실과 죽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이다. 본 과정에서는 후설-프로이트-하이데거-야스퍼스-사르트르-빅터프랭클-라캉으로 이어지는 정신사 궤적을 탐사하여, 죽음학의 치유적 관점을 도출하고 ①인지-의식-마음-감정-정신의 작동 메커니즘과 지향성을 후설과 프로이트의 사후적 재구성이론으로 탐색, ②인지-의식-마음-감정-정신이 내담자의 언어표상에 의해 재구성된 것임을 분석, ③그 담화적 특성을 라캉의 담화구조와 마크존슨의 신체화 된 언어표상으로 해석, ④내담자 자신만의 고유한 문법체계로 ‘상실-비탄(고통)-애도’를 의미화하여 진정한 주체의 탄생과 더불어 애도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한다.	3	전 공 필 수 의 무 과목
	평가와 개입	‘평가와 개입’은 상실과 죽음으로 인해 내담자가 앓고 있는 고통의 속성을 평가하여, 싸나톨로지스트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나 이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평가하며, 누가 누구에게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이는 평가와 개입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집약할 수 있다. 즉 평가와 개입의 주체가 싸나톨로지스트인가 아니면 내담자인가이다. 즉	3	전 공 필 수 의 무 과목

		음악에서는 평가와 개입의 주체가 싸나톨로지스트로부터 내담자로 이행할 것을 주문한다. 자신의 주체성을 내담자에게 양도하는 싸나톨로지스트의 ‘능동적 수동성’의 실천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자신에게 방문한 외상-상처를 비로소 의미화 하게 된다. 그곳에 진정 싸나톨로지스트의 주체성이 빛난다. 이장에서는 내담자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싸나톨로지스트의 ‘능동적 수동성’의 실천을 알아본다.		
	죽음교육 실습	죽음교육은 고정관념이나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 아닌, 유용한 죽음관련 자료, 방법론, 이론적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 죽음교육의 구성은“자신을 포함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 또는 제3자가 상실이나 죽음에 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이를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술과 지혜를 배움으로써,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하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각 생애발달단계의 특성(장점)을 활용해서 상실과 죽음의 경험을 대처하고 극복하는 것이 죽음교육의 생애발달개념이다. 죽음교육은 객관적인 사실부터 주관적인 관심사 모두를 다루어야 하기에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제공되는 교육과정을 지녀야 하며, 교육내용은 죽음을 맞이하고 대처하는 수많은 방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전 공 필 수 의 무 과목
선택	생명윤리	‘공감과 이해’는 생명윤리의 기초가 된다. 죽음학에서 요청되는 선행, 자율성, 손상금지, 정의 등의 내용을 칸트의 절대적 윤리주의와 존.벤담, S.밀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인간다움’을 지향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3	논 문 및 자 격 증 이 수 선 택 과목
	종교와 죽	종교의 핵심 주제는 ‘죽음·보상·처벌·수치·죄책감’이다. 이	3	논 문

	음	들 항목들이 종교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갔는지를 비교종교학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종교 양식의 보편성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는 '죽음·보상·처벌·수치·죄책감'에 대해 어떻게 직면하고 대처해야 할지 그 가능성을 연구해 본다.		및 자격증이 수선택 과목
	외상적 죽음과 치료	오늘 우리 사회는 외상을 앓고 있다. 본 과정에서는 외상을 양산하는 사회 구조의 특징과 대처의 방식에 대해 고찰한다. 더 나아가 외상의 시원과 발생 그리고 외상구조의 전변과 병리적 과정을 외상의 계보학적 관점에서 탐사해 본다. 그 치유의 방법은 탐사의 과정에서 저절로 드러난다.	3	논문 및 자격증이 수선택 과목
	로코테라피·의미치료	로고테라피·의미치료는 실존정신언어분석 기법을 통해, 상실과 죽음으로 인한 '수동적 객체'로부터 '능동적 주체'로 전환되는 '자유의지'의 심적 기제를 탐색한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할 때 새로운 의미와 통제감을 획득한다. 언어화는 감정을 다루는 손잡이와 같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감정을 수정한다. 언어는 이렇게 새로운 의미의 생성을 촉진한다. 감정에 명칭이 부여되면서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강한 자기감이 촉진된다. 감정을 언어적으로 상징화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감정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위치와 관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느낀다고 말할 때, 이것은 나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한다. 그리고 이때 자기를 감정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닌 책임지는 '주체'로, 즉 체화된 자기(embodied self)로 경험하게 된다. 로고테라피·의미치료는 어떻게 감정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닌 책임지는 '주체'로 전환되는지를 제시한다.	3	논문 및 자격증이 수선택 과목